

# “오월광주 오버랩...국민 염원 제대로 읽어라”

### 5·18때 광주 지지한 파독간호사들이 본 시국 해법은

#### “광화문 촛불집회 참여...박대통령 하루빨리 결단해야”

#### 5·18재단 초청 방문...당시 해외 교민활동 자료 기증

“퇴진이든, 하야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염원을 들어줘야 합니다.”

파독 간호사 출신 최영숙(여·72·독일 베를린) 한민족유류연대 대표는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촛불집회를 보면서 36년 전 독일 베를린 한인사회와 함께 거리로 나선 기억을 떠올렸다. 최 대표는 80년 5월 독일 베를린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참상을 뉴스를 통해 접하고 거리로 나서 광주시민을 지지하고 군사독재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열었다. 이후 36년 동안 유럽에서 ‘재유럽 오월민중제’를 진행(광주

일보 5월9일자 1면)하고 있다.

최 대표는 17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12일 촛불집회에 직접 참가했는데, 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접한 독일 교민 사회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 평화롭게 가두 시위를 진행했던 그날이 오버랩됐다”며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한 자리에 모여 질서 있게 민주주의를 외치는 모습이 굉장히 감격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매주 거리로 나서 시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슬프지만 하다”며 “정권, 청와대,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하

루빨리 수습해서 국민이 힘들지 않게 해줬으면 한다. 하루빨리 퇴진이든 하야든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5·18기념재단의 초청으로 다른 파독 간호사 출신 독일 교민 5명과 함께 광주를 방문 중이다. 이들은 80년 5월 독일 등에서 진행했던 해외 민주화운동 자료와 베를린 한인 교민활동 자료를 재단에 기증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함께 광주를 찾은 서의숙(여·64·독일 베를린)씨는 “현 시국을 규탄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국민의 모습에서 5·18 때의 모습과 국민이 민주주의를 일으키기 위해 애써온 과정들이 느껴진다”며 “성숙한 국민이 있기 때문에 5·18 때처럼 힘든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국민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당연히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능력한 대통령이 일단 내려오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허수아비를 세워놓은 측근들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하지만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많이 배우고 간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를 찾은 최 대표 등 파독 간호사 출신 교민 6명은 17일 5·18기념재단에서 열린 ‘해외사료 기증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뒤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담당 직원과 소쇄원을 둘러봤다. 18일에는 5·18자유공원과 옛 전남도청, 5·18기록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우리는 시국선언! 형은 합격선언”

### 광주 수능 응원전서 시국 패러디 ‘눈길’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7일 광주의 한 시험장 응원인과 속에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영향으로 ‘시국선언’이라는 단어가 적힌 피켓이 등장했다.



광덕고 학생 7명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서석고(제26지구 19시험장) 정문에서 선배들을 위한 응원전을 펼쳤다.

광덕고 학생들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바라는 문구가 담긴 응원 피켓을 들고 시험장으로 들어서는 선배들을 응원했다. 피켓에는 ‘우리는 시국선언! 형은 합격선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피켓은 지난 16일 학교에서 선배들을 대상으로 펼친 응원전에서도 쓰였다.

이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우리들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선배들을 응원하면

서도 현 정부를 향한 메시지를 담고 싶어 피켓을 만들게 됐다”면서 “정유라 사태 이후 많은 학생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SNS에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패러디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수능 문제가 등장했다. ‘최순실 게이 트영역’이라고 불리는 이 문제는 모두 6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최순실, 마르·K스포츠재단,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 청와대 입장 등이 등장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해남 AI 양성반응 닭 4만여마리 살처분

조류인플루엔자(AI) 양성반응을 보인 해남의 산란계 농장 닭 4만200여마리가 살처분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남도, 해남군 등 방역당국은 AI 양성반응이 확인된 해남군 산이면 Y씨의 농장의 산란계 4만여마리를 포함해 4만200여마리의 닭에 대해 17일 오전부터 살처분에 들어갔다. 살처분 대상 닭들은 Y씨 농장 인근 토지에 매몰되며 살처분 작업은 1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이들 닭이 낳은 달걀 7만 5000개와 사료 30t도 함께 매몰할 방침이다. 이들 닭의 바이러스 유형 및 고병원성 여부는 농식품부 소속 국립축산검역본부 가 정밀 검사 중으로, 검사 결과는 오는 20일께 나올 예정이다. Y씨는 지난 16일 2000여 마리가 폐사하자 AI의심 신고를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트랙터시위 “광주 왔습니다”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농기계 진격 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소속 농민들이 17일 광주시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트랙터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15일 해남군청을 출발한 농민들은 오는 26일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 참가를 위해 농기계를 끌고 서울로 향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서 무죄

### 16년만에 누명 벗어...풀어졌던 용의자 긴급체포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돼서 좋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을 하려 할때마다 붙어다니던 살인 꼬리표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감압 수사와 진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에서 범인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6년만에 누명을 벗은 것이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7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최모(32·당시 15세)씨의 재심에서 살인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살해 동기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응,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출처와 사후 처리 등 내용에 객관적 합리성이 없으며 자백 동기와 경위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검사가 제출한 최씨의 범행 전후 통화내역 등 다른 증거들과 비교해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10여년 전 재판에서도 (재판부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임했을 것이나 결과적으로 재심청구인이 한 자백의 신빙성에 대해 의심하고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충분한 속고가 필요했다는 아쉬움이 남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위로했다.

하지만 최씨 측은 수사당국 관계자들의 사과와 검찰의 재수사 및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2003년 경찰이 택시 강도 미제사건 수사 도중 살인사건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붙잡아 자백을 받았던 김모(38)씨에 대해 재수사하고 당시 검찰이 석연치 않게 수사를 마무리 한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이날 오후 경기도 모처에서 강도살인 혐의의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과거 김씨가 자백을 반복하고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던 검찰은 재심 과정에서 김씨를 출국 금지했다.

검찰은 “오랜 시간이 지나 흉기 등 직접 증거를 찾기 어렵지만 시신 부검 결과와 목격자 진술,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유력한 피의자로 특정돼 체포됐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

## 광주 동구 위법·부적정 행정 무더기 적발

### 시 감사...쫓개기 입찰 등 47건

광주 동구가 쫓개기 입찰을 하거나 지방세를 과소 부과하는 등 수십건의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광주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전일 동구청장 재직시절 기간인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동구청이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36건, 주의 11건 등 행정상 조치 47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년에 한차례 실시하는 종합감사로, 조직과 인사 분야를 비롯한 주민생활과 관련된 분야, 예산·회계 분야 등이 중점이었다.

광주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경징계 4명과 훈계 47명 등 5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했으며, 2건의 기관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산 회수와 부과 등 3억5000만

원에 달하는 재정상 조치도 취했다.

감사 결과, 2014년 수질관리 약품(3670만원)을 구매하면서 11건으로 쫓개기 후의계약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전자공개 입찰을 했으면 460만원 상당의 예산 절감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업무 담당 과장은 공사감독 공무원 피복비 부적정한 지급, 체육공원 축구장 사용료 부당한 감면 등 4건이 함께 적발돼 경징계 조치를 받았다.

기간제 근로자 3명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위원이 아닌 내부 직원들만 군수, 평가한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직원 체육행사비를 여비로 사용하거나 2014년 전후로 사업을 종료해놓고도 국비와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1억4000만원)을 반환하지 않는 등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사례도 드러났다.

/최권열기자 cki@kwangju.co.kr

### “청와대 비서관인데...” 전근 미끼 공무원에 수천만원 뜯어



○...청와대 비서관을 사청에 군청 공무원에게 접근, 광역단체 전근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뜯은 40대가 범행했다.

○...광주지검은 17일 청소년유악범죄를 운영하는 이모(43)씨는 전남의 한 군청 공무원 A(6급)씨에게 “청와대 1급 비서관인데 광주시청으로 전근 보내주겠다”

고 속여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4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

○...조사 결과, 이씨는 과거에도 청와대 비서관을 사청에 3차례 사법처벌 전력이 밝혀졌는데 검찰 관계자는 “아직도 청와대 사청에 속는 공무원이 있다”며 혀를 끌권었다.

/박정욱기자 jwpark@

등록번호: 전남-목포-국제-2013-001

#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 사항**

국제결혼 계약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히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하십시오.  
※ 무등록자는 피해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하십시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충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기준 1억원이상 사청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247-7700  
062)372-9777

※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http://kbmyshop.eplusmobile.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이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 직장인 스피치

시(詩) 낭송 감성 스피치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고려수지침을 연구하시면 평생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정통 서금요법·고려수지침 강좌

정통 수지침은 고려수지침으로 1975년에 유태우 박사가 처음으로 개발 창시하였습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고려수지침은 현재 10개 국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서금요법이란 수지침 외의 서암뜸, 기마크롬, 서암염돌기, 이규뜸, 금봉 등을 말합니다.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한의약이 아니고 한국의 새로운 의학입니다. (고려수지침 강좌는 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히브리어, 중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자신과 가정, 단체의 평생 건강관리에 필요하고 질병을 속히 낫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부작용, 후유증, 위험이 없습니다.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자원봉사에 좋으며 외국 이민, 귀농, 농어촌 생활에도 꼭 필요합니다.

우측의 책자를 구입하시면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여 배울 수 있고, 월간 서금요법을 발송해 드립니다.

유태우 원저 / 4×6배판 / 508면 / 장가 60,000원

특가 48,000원

유태우 원저 / 4×6배판 / 367면 / 장가 53,000원

(주)고려수지침

■문의처 : (02)2231-3000 ■통신구입처 : (02)2233-0841~2  
■인터넷 쇼핑몰 www.seokeumshop.com (고려수지침학회중앙회를 검색하세요.)

■광주지회 062)224-5343 ■전남지회 062)525-0001 ■광주동부지회 062)227-3407 ■광주북부지회 062)512-2170  
■광주남부지회 062)673-8492 ■광주광산지회 062)956-2237

※타 지방에서는 전국의 160여 지회를 이용 바랍니다.